

미 증시, 실적과 중국 부양책 기대에 상승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기대감

•미 증시는 주말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중동 분쟁이 더 확산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안도.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202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동성 투입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 전망과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을 완화할 것이라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 금일 장 시작 전, 찰스슈왑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였고 광범위한 매수세에 빅테크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임. 그러나 애플은 중국에서의 iPhone 15 판매량이 전년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에 약세 기록 (다우 +0.93%, 나스닥 +1.20%, S&P500 +1.03%, 러셀2000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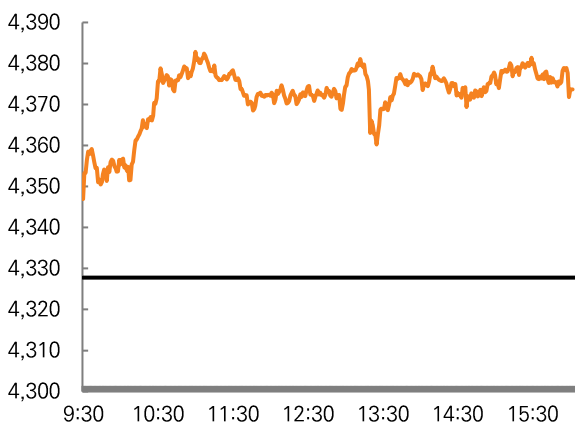
특징 종목: 전 섹터 상승

•S&P 500의 전 섹터가 상승하며 광범위한 강세를 나타내. 전일 약세를 보였던 경기소비재(+1.65%), 커뮤니케이션서비스(+1.47%) 등이 상승을 주도. 주요 Mega cap 기업 상승하며 강세를 견인. 찰스슈왑(+4.66%)은 3분기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지만, 매출과 예금은 전년대비 각각 6%, 28% 감소했다고 발표. 룰루레몬(+10.31%)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대신 오는 수요일 S&P 500에 편입될 것이라 소식에 강세. 화이자(+3.61%)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크게 낮췄지만, 제프리스가 투자의견을 상향조정하자 상승.

한국 증시 전망: 반발매수

•MSCI 한국 지수 ETF는 0.56%, MSCI 신흥 지수 ETF는 0.7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6.2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9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3% 상승. KOSPI는 0.4%~0.7%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는 중동 정세 불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3분기 실적과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상승한 美 증시의 우호적 분위기 이어질 가능성 높아. 특히 달러인덱스가 약세를 보인 점은 국내 외국인 수급 및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다만 단기적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 회복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은 코스피 2.5%, 코스닥 2.0%인 상황.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2차전지 등 투자자들의 관심과 시총 비중이 큰 섹터의 반등이 중요. 결국 이들 섹터의 실적 반등이 Key가 될 것.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36.24	-0.81	상해종합	3,073.81	-0.46
KOSDAQ	810.54	-1.49	홍콩항셱	17,640.36	-0.97
DOW	33,984.54	+0.93	인도센섹스	66,166.93	-0.17
NASDAQ	13,567.98	+1.20	유로스톡스 50	4,149.86	+0.33
S&P 500	4,373.63	+1.06	영국	7,630.63	+0.41
캐나다	19,620.80	+0.81	독일	15,237.99	+0.34
일본	31,659.03	-2.03	프랑스	7,022.19	+0.2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① 실적기대 ② 中 부양책

미 증시는 주말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중동 분쟁이 더 확산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안도.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202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동성 투입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것이란 점과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을 완화할 것이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 금일 장 시작 전, 찰스슈왑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였고 광범위한 매수세에 빅테크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임. 그러나 애플은 중국에서의 iPhone 15 판매량이 전년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에 약세 기록.

상승: 실적, 부양책 및 지정학적 불안 해결 노력

장 시작 전, 실적을 발표한 찰스슈왑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며 지난 주 대형은행 호실적의 흐름을 이어가. FactSet에 따르면 3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 32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 이 중 84%가 주당순이익(EPS)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3분기 EPS 증가율 추정치는 (전년대비) -0.3%에서 +0.4%로 상향하며 2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

중국 인민은행은 16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2,890억 위안의 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해 경기부양 및 시장 스트레스 완화에 나선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 이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유동성 공급 규모. 그러나 중국 증시는 연중 최저 수준에 형성되고 있는 점은 부담. 상해종합지수는 지난 8월 25일 이후, 심천성분지수는 연중 최저수준까지 하락하며 1만 선을 하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동안 위험이 확산되기 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다자간 협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에 지정학적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보여. 그러나 국지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군 투입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 확산의 여지는 큰 상황인 만큼 지속적인 상황 전개에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 있음.

Eco 리뷰: 뉴욕주 제조업지수 소폭 하락

10월 뉴욕주 제조업지수(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는 9월 1.9에서 10월 -4.6으로 소폭 하락. 시장이 예상했던 -6.0보다는 개선. 경기 여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9월 26.6%에서 24.1%로 줄어든 반면,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에서 28.7%로 늘어.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주문지수는 9월 5.1에서 -4.2로 하락. 특히 주문량이 늘었다고(27.1%) 답한 응답자보다 감소했다(31.3%)고 답한 응답자가 크게 늘어. 출하지수는 12.4에서 1.4로 하락하며 지난 4월 최고치인 23.9에서 지속 하락. 미완료 주문지수는 -5.2에서 -19.1로 크게 하락. 이는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또한 지난 달 인플레이션 압력은 소폭 완화되었는데, 가격지불지수는 25.8에서 25.5로 완화. 반면 고용지수는 -2.7에서 3.1,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에서 2.2로 상승하며 견고한 고용시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전 섹터 상승

S&P 500의 전 섹터가 상승하며 광범위한 강세를 나타내. 전일 약세를 보였던 경기소비재(+1.65%), 커뮤니케이션서비스(+1.47%) 등이 상승을 주도. 주요 Mega cap 기업 중, 애플(-0.07%)를 제외한 아마존(+2.13%), 메타플랫폼스(+2.05%), 마이크로소프트(+1.50%) 등이 상승하며 강세를 견인. 찰스슈왑(+4.66%)은 3분기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지만, 매출과 예금은 전년대비 각각 6%, 28% 감소했다고 발표. 콜루레몬(+10.31%)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대신 오는 수요일 S&P 500에 편입될 것이란 소식에 강세. 화이자(+3.61%)는 올해 매출 가이드언스를 크게 낮췄지만, 제프리스가 투자의견을 상향조정하자 상승. 반면, 다른 코로나19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를 만드는 바이오엔텍(-6.38%), 모더나(-6.47%) 및 노바백스(-5.96%)는 크게 하락. 애플은 최근 출시한 iPhone 15 시리즈의 중국에서의 초기 판매가 지난 해 대비 4.5% 감소했다는 소식과 모건스탠리가 목표주가를 하향(\$215 → \$210)했다는 소식에 약세. 또한 미국 약국 체인인 라이트 에이드는 경영난에 파산(Chapter 11) 보호 신청.

상품 및
FX시장 동향

구리 4개월래 최저치에 근접

구리 선물 가격은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이 재고 증가와 함께 가격에 부담을 주며 지난 5일 기록한 4개월 최저치인 파운드당 3.56달러에 근접한 3.60달러 미만을 기록. 우선 美 연준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정책 스탠스를 유지함으로써 산업 서장이 둔화될 수 있는 우려를 키위. 또한 부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 기업의 위험이 다른 기업 및 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가격 하방 압력을 높여.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최근 가격변동성이 커진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불안 해소를 위한 다자간의 노력과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할 수 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

가상화폐 뉴스를 제공하는 Cointelegraph가 블랙록이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한 현물 ETF가 승인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10% 넘게 급등하며 3만 달러 회복하기도 하였지만, 블랙록이 이를 부정하자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시장은 내년 1월쯤 승인 날 것으로 기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발매수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0.56%, MSCI 신흥 지수 ETF는 0.7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46.2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9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3% 상승. KOSPI는 0.4%~0.7%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는 중동 정세 불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3분기 실적과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상승한 美 증시의 우호적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 높아. 특히 달러인덱스가 약세를 보인 점은 국내 외국인 수급 및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다만 단기적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 회복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은 코스피 2.5%, 코스닥 2.0%인 상황.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2차전지 등 투자자들의 관심과 시총 비중이 큰 섹터의 반등이 중요. 결국 이들 섹터의 실적 반등이 Key가 될 것.



소매 ETF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01	대형 가치주 ETF (IVE)	+1.15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1.31
소매업체 ETF (XLY)	+1.62	소형 가치주 ETF (IWN)	+1.48
온라인소매 ETF (EBIZ)	+1.66	대형 성장주 ETF (VUG)	+1.15
미국 인프라 ETF (PAVE)	+1.33	중형 성장주 ETF (IWP)	+1.31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1.69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2.23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49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76	미국 국채 ETF (IEF)	-0.59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26	하이일드 ETF (JNK)	-0.03
바이오섹터 ETF (IBB)	+0.55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86	물가연동채 ETF (TIP)	-0.29
반도체 ETF (SMH)	+1.15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6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경기소비재	1,272.82	+1.65	+0.78	-5.95
커뮤니케이션	231.86	+1.47	+0.30	+0.96
산업재	870.04	+1.05	+0.44	-1.74
유틸리티	304.15	+1.05	+3.65	-7.08
부동산	217.50	+1.02	+1.98	-5.26
필수소비재	712.68	+0.98	+1.09	-5.78
IT	3,025.04	+0.98	+0.70	+1.29
소재	493.24	+0.92	+0.33	-3.78
금융	556.78	+0.87	+1.32	-3.53
헬스케어	1,528.16	+0.75	+0.49	-0.52
에너지	690.94	+0.66	+1.61	-1.55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6.66	-0.76	+0.74	Dollar Index	106.204	-0.42	+0.11
브렌트유	89.65	-0.89	+2.19	EUR/USD	1.0559	+0.47	-0.08
천연가스	3.11	-3.71	-7.70	USD/JPY	149.53	-0.03	+0.69
금	1,934.30	-0.45	+3.67	GBP/USD	1.2217	+0.61	-0.17
은	22.77	-0.61	+3.79	USD/CHF	0.9001	-0.21	-0.72
알루미늄	2,180.50	-0.86	-2.72	AUD/USD	0.6342	+0.73	-1.08
전기동	7,976.50	+0.35	-1.57	USD/CAD	1.3611	-0.36	+0.15
아연	2,446.00	0.00	-2.67	USD/RUB	97.4731	-0.23	-2.36
옥수수	490.00	-0.71	+0.31	USD/BRL	5.0367	-0.83	-2.12
밀	577.25	-0.22	+1.00	USD/CNH	7.3088	-0.06	+0.22
대두	1,286.25	+0.53	+1.80	USD/KRW	1,353.70	+0.27	+0.28
커피	154.15	-0.48	+5.55	USD/KRW NDF1M	1,346.20	-0.36	+0.0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702	+8.94	-9.91	스페인	3.904	+2.40	-2.10
한국	4.197	+3.20	-4.70	포르투갈	3.514	+1.00	-5.50
일본	0.761	0.00	-4.40	그리스	4.322	+2.20	+1.40
독일	2.785	+4.80	+1.30	이탈리아	4.764	-1.20	-7.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